

중국, 곳곳에 가짜 명품이 가득!

중국 상하이 중심가의 상양시장에는 4백~5백여개의 '작통 가게'가 밀집해 있다. 구치, 사넬, 버버리 등의 가짜 제품들뿐만 아니라 한국 DVD, 선글라스, 만년필, 가방, 시계, 의류, 신발, 골프채 등의 작통이 즐비하다.

작통제품의 가격은 6백원(4위안)~4만원(2백60위안), 가짜 루이비통 구두가 3만7천5백원(2백50위안) 정도, 몽블랑 볼펜 모조품이 6백원(4위안) 정도에 불과해 진품 가격에 비하면 1백~5백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또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셈.

이러한 작통 시장은 중국 대도시 곳곳에 널려 있다. 심지어 중국의 상징인 베이징 톈안먼 주변 거리에서도 단속의 눈길을 피해 롤렉스, 오메가, 불가리 등 가짜 시계를 파는 노점상이 눈에 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해 전세계 작통 시장의 규모를 상품 교역량의 5.7%인 5천1백20억 달러(5백22조원)로 추정하고, 이 중 중국산이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작통 대국'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품의 진위 여부를 떠나 루이비통, 프라다, 지방시 등 유명 브랜드가 전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팔리는 것을 일절 금지했다.

단속을 책임지는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의 왕친핑 부국장은 최근 '중국을 가짜 명품 대국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에는 수많은 명품 가공 공장이 있어 남는 물품이 나돌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현상으로 다른 나라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로 상양시장의 한 상인은 '전문공장에서 질 좋고 값싼 가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문제는 듣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소니, '뇌 자극' 아이디어 특허

일본 소니사가 뇌세포를 외부에서 직접 자극함으로써 영화나 비디오 게임을 즐기면서 냄새와 맛, 심지어는 촉감까지도 실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런던의 과학전문 주간지 뉴사이언티스트가 최신호에 보도했다.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리는 뇌의 특정 신경세포 부위에 초음파를 쬐 감각을 유발시키며, 초음파의 패턴을 변화시켜 감각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영화 '매트릭스'가 상상하는 세계가 현실화될 수 있는 단초를 열어주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발명가는 미국의 샌디에이고 소니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알려졌으나 외부 인터뷰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열티를 주고 사용하기도 했다.

첫 번째 아이디어의 제공자는 병원의 간호사였다. '환자들이 열음주머리를 이마에 얹을 때 미끈거린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이 장갑처럼 끈끈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이타야는 곧바로 생산에 착수하였다. 결과는 역시 대성공이었다. 이타야는 아이디어 제공자인 간호사에게 판매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주었다. 이 금액은 그 간호사 월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다. '결끄러운 고무장갑의 원리로 수술장갑을 만들고, 이보다 덜 결끄럽게 해서 촉감이 좋은 콘돔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타야는 이 아이디어도 사들여 생산했다. 이것도 대성공이었다. 이타야는 의사에게도 판매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주었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신문팔이 소년이었다. '고무골무를 결끄럽게 만든다면 신문을 헤아리기가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신문팔이 소년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판매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고무골무는 지금까지도 유행되어 많은 서류를 취급하는 관공서와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만화로 보는 발명 특허이야기 출원·특허등록 하는 방법 ⑥

외국 출원은 어떻게 하는가?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